

과학책 쓰기과 읽기의 어려움

장희익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요즘 과학 출판이 늘고 과학 독서 인구도 점차 불어난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과학독자'들과 직접 간접으로 접하게 될 경우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나 이들과의 접촉이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경우가 더 많은 듯하다. 이러한 실망을 안겨주는 독자들은 대체로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말하자면 자칭 '위대한 숨은 과학자'들이다. 아인슈타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위대한 과학자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가 틀린 것을 확인하고 대신 자신의 '새 원리'를 발견했다든가, 혹은 우주와 생명을 포괄하는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었다든가 하는 식이다. 심지어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이니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까지 한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독자들은 말하자면 '현혹 추구파'들이다. 한때 4차원이다, 타임머신이다 하여 온갖 신기한 것들에 매달리던 이 부류의 사람들은 요즘 취향이 다소 바뀌어 '신기한 것'보다는 '신비한 것' 쪽으로 쏠리는 듯하다. 이들의 구미를 맞추어 줄 출판물들도 적지 않다. "현대과학이 동양철학으로 돌아왔다"든가, "양자역학이 동양적 신비사상에 의해 해명된다"는 따위의 주장은 이들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동양인으로서의 자존심까지 만족시켜주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러한 책들이 적어도 계몽적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통해 독자들의 의식 속에는 전혀 가당치 않은 내용들이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란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과학은 물론 많은 신비한 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멋대로 상상하는 환상의 세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철두철미한 학습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일반 독자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과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만한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로 이 점에 과학 글쓰기의 어려움이 있다. 독자들의 흥미에 영합할 경우 엉뚱한 왜곡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독자의 진지한 이해를 추구할 경우 독자들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과학 글쓰기와 과학 글읽기를 가버야 할 수도 없다. 현대문명의 가장 큰 병폐에 대하여 프랑스의 과학사상가 모노는 "현대인이 과학이 맺어준 열매는 즐겨 따먹으려 하면서도 과학이 말해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곡을 찌른 말이다. 현대 과학기술문명은 무분별한 개발철학과 자원남획에 의하여 전 지구적 생명에 대해 회생키 어려운 위해를 가하고 있으나, 현대인은 이것이 의미하는 엄청난 결과를 파악할 의지도 능력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오직 과학의 눈과 입을 통해서만이 그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겠으나, 오늘날 독자들의 관심사나 저자들의 집필의도가 모두 이러한 요청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은 현대과학이 일반 독자에게 전해야 할 절실한 내용이 무엇인지, 현대 독자가 과학을 통해 얻어야 할 귀중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저자와 독자 사이에 가로놓인 두터운 벽을 깨트리기 위해 좀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과학의 글은 읽기도 어렵거니와 쓰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뉴스 2	출판경영인 세미나 개최 · 외
표지인물 4	우리문학의 깊고 거대한 뿌리찾기 「한국의 漢文學」 펴낸 이병주박사
세미나 6	정보화시대 대응한 한국출판의 진로모색 제13회 출판경영인 세미나 지상중계
서평 8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 오종록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 권택영
9	아블린스키 외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 박영호
10	김지운 외 「비판커뮤니케이션이론」 - 김민환
10	박성래 「민족과학의 뿌리를 찾아서」 - 이성규
11	휴즈 「새로움의 충격」 - 이영철
11	여석기 「에세이 세익스피어 명작선」 - 이경식
11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 권영민
확대서평 12	독일문학연구의 한국적 의미 - 이상일 「독일문학의 본질」 「독일표현주의드라마」
신간다이제스트 13	서구인의 눈으로 본 日권력의 실체 윌페련의 「일본의 권력구조」
초점 14	인세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적 현실 반영한 '덜 나쁜' 제도
출판화제 16	눈길 끄는 90년대의 신생출판사들 기존 출판계 '빈 자리' 채우며 등장
18	비로소 활기 띠는 세계각국사 출판 번역서 태반이나 지역적으로 점차 다양해져
19	현대중국문학, 국내독자들 관심 끈다 새 시집시리즈 '한길의 시'
리뷰 20	茶山學 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 반백년 연구사에 740여편의 논저 발표돼
이책그사람 22	「국어종결어미연구」 펴낸 한길 교수 「내가 만난 여자, 그리고...」 펴낸 오숙희씨
23	「한국현대아동문학론」 펴낸 최지훈씨 「투명한 어둠」 펴낸 현길언씨
해외화제 24	프랑스에서의 만화출판의 위상 - 에릭 비데
세계의 출판 26	현대여권운동의 '위험한' 경향들 · 외
29	독자서평
30	어린이책 들춰보기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